

# 고흥군, 청년 CEO에 창업·성장지원금

### 창업교육·발표평가 통해 8명 선발 창의적 아이디어 1800만원 제공 맞춤형 컨설팅·판로 개척도 지원

고흥군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청년 CEO 발굴·지원에 적극 나섰다.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와 고흥청춘누리에서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지원과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한 '고흥군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 선정자와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7명을 대상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신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 이는 지역 청년들의 이발 방식과 청년인구 유입 등 효과로 이어졌다.

군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사업가를 위한 순환학습이론과 사업계획 수립, 수익모델 발굴 등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교육과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8명의 창업 희망 청년 CEO를 선발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예비창업자들은 1인당 최고 1800만원까지 창업지원금을 지원 받는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유 모씨는 '찜질 카페'라는



'고흥군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 선정자들이 협약 체결 후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사업 아이디어로 찜질과 카페를 접목시켜 건강음료부터 찜질, 마사지 등을 한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는 힐링공간 조성을 기획했다.

고흥군은 이밖에 '청년 취·창업 및 후속 프로그램 지원, 초기창업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마을·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가

업 연계 청년 지원', '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청년들이 주도하는 창업의 미래 생태계 조성하고 자생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경험 많은 공무원 11명

### 순천시 '나도강사' 위촉

### MZ세대 공무원 실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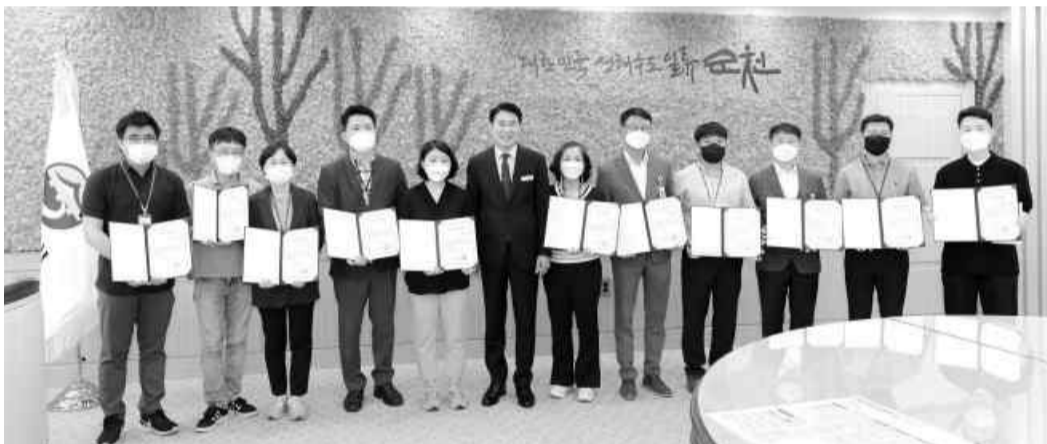
순천시가 시청 내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하고 동료 공무원과 경험을 나누는 교육제도를 운영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선배·동료 공무원이 강사가 돼 내부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순천시 나도강사' 11명을 위촉했다.

'나도강사'로 위촉된 11명은 전문성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부터 관련분야 경험과 열정이 있는 9급 주무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에 앞서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교수설계·스피치 기술, 교안 구성법 등 기본 강사교육과 실전 강의기법, 소통전략·교안 피드백 등 실무 강사교육을 받았다.

순천시는 조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실무, 회계·계



순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나도강사'의 위촉식이 열렸다. <순천시 제공>

약 실무, 공문서 작성 등 6개 직무 분야와 공직자 마인드, 세계유산 바로알기, 마을공동체 등 5개 소양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나도강사'로 위촉된 공무원들은 조직역량 강화에 사명감을 갖고 동료 공직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일류 순천으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혁신동력인 공무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과 업무비결을 동료 공무원과 적극 공유해 일하는 공무원, 공부하는 공무원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고 시민에게 더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광양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특화사업 추진

광양시는 건강꾸러미를 배부하는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을 일찍이킬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신체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수급자의 건강을 향상하고, 나아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실시하는 의료급여 특화사업은 '건강검진 받고 행복 찾기'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의료급여 관리사가 강사를 맡아 소규모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추후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율 제고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건강꾸러미'를 제작해 의료급여 특화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건강꾸러미'는 의료급여사업 홍보물품, 의료급여 제도 안내문, 건강정보지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시 또는 방문 시에 배부해 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 주요 관광지 행락 질서 확립 집중 관리

### 압록유원지 등 9곳 계도요원 배치

휴가철을 맞아 곡성군이 주요 관광지에서 생활 방역 수칙 준수 계도와 올바른 행락 문화 지키기에 나섰다.

군은 행락 질서 종합 대책을 통해 7월부터 8월 말까지를 건전한 관광객 맞이 행락 질서 확립 중점 기간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간 중 곡성군은 도립사 계곡, 압록유원지, 태안사 계곡 등 주요 관광지 9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0여 명의 행락 질서 계도 요원을 배치했다.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중점 점검, 피서지

생활 쓰레기 관리, 무단 투기 및 무단 취사 등 각종 무질서 행위 방지 활동을 통해 질서 있고 올바른 행락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 동안에 곡성군은 주요 볼놀이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시설 점검, 안전 요원 배치에 대한 사항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가격 표시 미이행 여부 등 물가 단속도 실시한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에 중점적으로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코로나 19 유입 차단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 여수시 15일 돌산읍 승월마을서 달빛축제

### 청년 음악회·다양한 체험행사

'달이 차오른다, 가자'

여수시는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돌산읍 승월마을에서 '달빛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지역 주민들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청년거리문화화랑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2022 청년거리문화화랑마당 첫 번째 행사로 열리게 됐다.

이날 축제에서는 청년 뮤지션들의 감미로운 재즈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달빛음악회', 향긋한 차 내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달빛차회' 등을 만날 수 있다.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토끼와 거북이 모양의 '유등만들기 체험', 마을길을 돌며 옥수수를 직접 따보는 '마을투어 체험', 달빛 아래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강강술래' 체험도 준비돼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25개 기업이 참여하는 프리마켓과 먹거리 장터도 열려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승월마을벚꽃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정성을 다해 축



제를 준비했다"며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한 만큼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아와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관광과 축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달빛축제에 이어 이순신광장, 여문문화의 거리에서 특색 있는 주제로 올해 청년거리문화화랑마당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구례 지리산씨협동조합 치유 인문프로그램

### 9월까지 10회...참가자 모집

구례 지리산씨협동조합이 코로나 19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인문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구례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지리산씨협동조합이 운영하는 '2022년 우리가치 인문동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 깊어진 국민에게 인문프로그램을 통해 위로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와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소설가, 미술작가 등 인문분야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대화와 창작 과정으로 구성됐다. 정치가 소설가, 이원규 시인, 원유현 사진작가, 이상지 연극인, 소년 공예작가 등 13명의 지역 인문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프로그램 별로 10명 내외로 참가자를 모집해 9월 말까지 10회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과정의 결과물은 출판물로 제작해 배포한다.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지리산씨협동조합에 전화(070-8880-035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리산씨협동조합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워크숍을 열고 해당 사업을 구체화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